

워터코스터+토네이도 '메가스톱' 타봤니?

용인 캐리비안 베이

제작비 170억...하이브리드 어트랙션 면적 8000㎡·길이 355m...세계 최장 매일 10회 이상 정수...철저한 물 관리 스마트 예약·가족사위실 등 편의 UP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는 국내 워터파크의 트렌드세터다. 1996년 문을 연 이래 19년간 2500여만 명의 누적 입장객을 기록할 수 있던 데는 새로운 레저 트렌드를 만들거나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과감성과 이를 정착시키는 운영능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캐리비안 베이의 올 여름 키워드는 '노는 규모와 물이 다르다'이다. 워터파크의 기본이자 핵심인 물에 대한 남다른 관리와 아낌없이 투자한 신규 어트랙션으로 고객맞이에 나섰다.

●슬라이드 활강의 차원이 다른 170억짜리 '메가스톱'

6월20일 오픈한 메가스톱은 두 가지 물놀이 시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어트랙션'이다. 메가스톱을 세계 두 번째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캐리비안 베이는 170억원과 2년여의 제작기간을 투자했다.

메가스톱은 '자기부상 워터코스터'에 강화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토네이도'를 결합했다. 전체면적 8000㎡(2400여평)에 슬라이드 길이가 355m로 세계 최장이다. 지상 37m 탑승장에서 무게 200kg, 지름 2.7m의 6인용 원형 튜브에 앉아 출발하면 슬라이드를 상하좌우로 회전하며 급하강과 급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하강 뿐 아니라 세 번에 걸친 상승구간에서도 자기장을 이용해 최대 시속 50km를 낼 수 있다. 캐리비안 베이 관계자는 "메가스톱은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파크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워터파크 기본은 물관리...1만5000톤의 물 하루 10회 이상 정수



'고객만족을 위해선 아낌없이 쓴다'는 캐리비안 베이의 모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규 어트랙션 메가스톱의 거대한 슬라이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메가스톱은 170억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초고가 물놀이 시설이다. 사진제공 |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에서 가장 기본은 물이다. 풀과 놀이시설에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워터파크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워터파크가 여름철 대중적인 레저 시설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고객의 관심을 먼저 끄는 어트랙션에 공을 들이지만, 캐리비안 베이는 그에 못지않게 기본을 충실히 하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캐리비안 베이는 현재 1만5000톤에 달하는 파크 내 풀과 스파의 물을 2시간 내에 여과할 수 있는 36개의 여과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워터파크의 법적 기준인 하루 3회 이상 정수보다 많은 하루 10회 이상 모든 물을 정수 처리한다. 또한 전체 물의 30% 이상은 매일 새 물로 교체해 पू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자동측정기, 현장 채수, 외부 전문기관 등 3종

모니터링으로 '물 샬 틈 없는 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행찾기 시스템·가족사위실...고객 감동 깨달 서비스

물놀이 중에는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와 헤어지는 경우가 잦다. 이를 대비해 '일행찾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용 두 곳의 입력기에 이름과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면 대형 모니터에 즉각 게시해 찾고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다.

'가족사위실'은 딸과 함께 온 아빠나 아들을 동반한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었을 난감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다. 혼자 샤워가 어려운 만 5세 이상의 어린이와 온 성별이 다른 보호자나, 임신부 또는 장애인 동반가족을 위

한 서비스로 실내 아쿠아틱센터 3층에 총 3개가 있어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 '스마트 예약' 시스템에서 이용권을 사전 구입하면 대표스 대기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한 QR코드로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물놀이 결재수단 '베이코인'도 '스마트 예약'으로 사전 충전하면 남은 잔액은 자동 환불돼 정산소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메가스톱', '타워 부메랑고' 등 인기 시설은 성수기 시즌동안 '현장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대기시간을 줄였다. 이밖에 가족이나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찾아가는 경우를 위해 독립된 휴식시설 빌리지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손목관절염·조조강직...혹시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염증성 질환...면역력 강화로 예방 가능

광주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49)씨는 2년 전 건물 관리회사에 재취업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건물을 청소했지만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이 생겼다. 평소 가끔 손목의 통증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김씨는 한 달 전, 업무에 임하던 중 손가락 관절의 강직과 통증으로 실신했다. 관절의 강직은 풀렸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 종합검진을 받던 중 악성 류마티스관절염을 진단받았다. 어떻게 김씨의 관절이 2년 새에 손상되었을까.

류마티스관절염은 염증이 활막조직을 침범하여 관절손상과 만성통증, 강직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유전, 면역, 호르몬 등과 관계가 깊다. 여성의 경우 출산 폐경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류마티스관절염은 1시간 이상의 조조강직이 있으며, 손목관절염과, 우리 몸 중 3곳 이상에서 관절염이 나타나며 통증을 유발한다. 병을 방치하면 관절 파괴가 점차 진행되어 관절 변형이 생기고 심한 경우 걷기, 산책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효과적일까. 이지스한의원 서진우 원장은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면역력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부분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으로 통증을 치료하지만, 이 질환은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으로 재발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 방치로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한방치료는 환자 개인의 체질에 맞춘 당약, 약침, 왕뜸 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수염양단과 진수고를 통하여 근본적인 면역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2~3주에 한 번씩 내원하여 간단한 침 치료를 받는다면 류마티스관절염을 더욱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유지가 중요하다. 서 원장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평소 식습관관리를 작성하여 내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을 구별하여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쁘띠 프랑스 '마리오네트 페스티벌' 보러오세요

내달 23일까지 '유럽인형축제' 개최

경기도 가평의 프랑스 테마공간 '쁘띠 프랑스'가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2회 유럽인형축제'를 연다.

축제에서는 3.2m 높이의 자이언트 마리오네트를 선두로 크고 작은 마리오네트와 버블카, 드럼연주 등이 이어지는 '마리오네트 퍼레이드'를 행사 기간 동안 매일 만날 수 있다. 프

랑스의 유명 축제인 '마리오네트 페스티벌'을 재현한 것으로 야외광장에서 마리오네트 인형들의 댄스 퍼포먼스로 마무리된다. 마리오네트극 '피노키오', 프랑스 전통 손인형인 기 놀인형극 '헨젤과 그레텔', 오르골 연주회, 프랑스 영화상영회와 함께 주말 특별공연도 열린다. 이밖에 마리오네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마리오네트 만들기'와 아이들이 손인형을 조작해 보는 '기분 인형극 체험'같은 고객참여

행사도 다양하다.

또한 개관 7주년을 맞아 신축 전시관을 25일 오픈한다. 3층 200평 규모의 공간에 프랑스 사계를 담은 미술 작품부터 유럽 명품 도자기 인형, 벽난로가 있는 유럽풍 거실, 19C 오르골, 프랑스 영화 등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쁘띠 프랑스는 아시아 관광객 사이에 경기도의 필수방문코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방문위원회가 온라인 쿠폰 다운로드를 집계해 조사한 2014년 인기 방문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쁘띠 프랑스 '유럽인형축제'

관광공사, 우수국내여행상품 무료체험 이벤트

관광공사는 공모를 통해 여름철 우수국내여행상품 20선을 선정하고 이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를 8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당첨자(당첨자 포함) 약 500명에게는 1박 2일간 우수여행상품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공사는 여름 국내관광 캠페인 사이트(http://summer.visitkorea.or.kr)를 개설해 무료관광지, 무료공원, 베니키아호텔 할인프로모션 등의 여행정보와 함께 여름철 추천여행정보, 우수 국내여행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자동차 매트 청소 안해도 먼지 안나고 깨끗해...

진흙길, 눈길 밟고 청소 안해도 깨끗한 카매트, 눈 비가 와도 바로 세척 한 듯 깔끔!!

뿔룩이 이중매트

운전자라면 한번쯤 아니 자를 때 마다 고민 했을 것이다. 자동차 실내매트(카매트)의 오염을... 몇 일만 청소 안 하거나 매트가 노후되면 매트속은 각종 세균과 먼지로 가득하다.

도저히 안되겠어, 매트를 꺼내 바닥에 대고 몇 번을 내리친다. 내리쳐도 쏙이는 먼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작은 매트에서 왜 이렇게 많은 먼지가 나올까? 그 많은 먼지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오염된 매트와 미세 먼지와 각종 세균은 에어컨이 나, 히터를 틀거나 창문을 열면 평상시 보다 더 심하게 차내 공기를 오염 시킨다. 자동차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 구태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가 동승한 경우라면 더 큰 걱정이다. 특수 재질의 친환경EVA 소재와 특수 코팅으로 만든 크린카매트는 눈, 비가 와도 담뱃재나 이물질이 떨어지면 세차를 한 듯 깔끔하다.



바로 엠보싱 뿔룩이 벌집 이중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매트 상면에 담뱃재나 흙 등 이물질이 떨어지면 특수 구조인 하판으로 모여 상판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하다.

엠보싱 뿔룩이 벌집 이중구조, 상판은 청소 안해도 깔끔, 이물질은 하판으로... 판으로 모여 상판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하다. 또 하판에 고인 이물질은 에어컨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청소도 쉽다. 한 달에서 두달에 한번 매트를 꺼내 상판과 하판을 살짝 분리해 쌓인 이물질만 털어 주면 된다. 크린카매트는 엠보싱 뿔룩이 벌집 이중구조로 미끌림이 거의 없고, 특수 코팅으로 마모가 거의 없으며 소재가 가볍고 변형, 변질이 거의 없으며, 일반 이중 매트의 가장 큰 단점인 낫지서 중앙(자바라)매트의 부자연스러운 변형이나 들뜸 현상이 있어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던 단점을 특수 재질의 고무 소재로 완벽히 보완 했으며 뿔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기능으로 운전자의 건강과 편리성 까지 높여 현대 운전자에게 사랑 받기에 충분하다.



컬러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테두리 각 컬러마다 고유한 디자인 테두리를 적용시켜 매트의 완성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시켜주며 이중박음질로 이물질이 묻리지 않게 튼튼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최고급 액티브 매트

매트 전문 기업 크린매트에서 지난 10여년간 연구 개발 및 수많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자신 있게 선보인 크린 '액티브매트'가 가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중매트와 고무매트, 코일매트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개발된 이 제품은 NYLON BCF재질의 원사를 한가닥 한가닥 꼬아서 만든 원사에 NR+SBR을 배합한 천연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견고하며, 변형이 없고, 흡먼지 및 이물질을 잡아주어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실내 공기 또한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여기에 NR+SBR의 배합시 전자파 차단 물질과 항균제를 첨가해서 자동차 및 주변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자동화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항균기능이 있어 자동차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보호 해주는 제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한번 구입 하면 자를 버릴 때까지 사용 할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제작 되었으며, 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수입차도 맞춤 제작 해드립니다. 국내 그 어떤 매트와 비교해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 국산자, 수입자, 전자중 주문제작 가능
전국 상담문의 **1588-8391**
※ 판매점 모집